

삶·죽음·인간... 10가지 주제로 본 철학사

철학의 대답들

케빈 페리 지음·이원석 옮김



철학은 본질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학문이다.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현대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철학사에는 목직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 질문을 대략 10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삶, 인간, 지식, 언어, 예술, 시간, 자유 의지, 사랑, 신, 죽음'. 세상을 살면서 진지하게 묻게 되는 질문은 대개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0가지 주제로 철학사를 정리한 책이 반가운 이유다. 미국 리버사이드 시티 칼리지 인문학 교수인 케빈 페리의 책 '철학의 대답들'은 철학자들의 사유를 통해 조망한 철학사다. 인도철학, 형이상학, 불교철학 등을 연구중인 저자는 그동안 하이데거, 니체, 푸코에 천착하며 철학의 배경을 탐구해왔다.

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쓰여졌다. 철학적 질문이 바뀌는 지점, 사유의 맥락을 중심으로 철학사를 조망할 수 있게 연표를 제시했으며 고대철학, 중세철학, 근대철학, 현대철학의 실존주의, 언어철학, 포스트모더니즘까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다른 무엇보다 주제별로 정리해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관심을 갖는 부분부터 읽을 수 있으며, 깊이 들어가길 원하는 이들에게는 길눈을 열어 준다.

서문 격인 '들어가는 말'을 쓴 철학자 사이먼 크리즐리는 "철학의 역사는 현재를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기록물이다 3000년 넘게 지속된 지적 유희의 방대한 배열이다"고 정의한다. 복잡한 철학사를 80명의 철학자와 함께 가장 근본적인 질문 10개 주제로



'철학의 대답들'에는 소크라테스, 칸트 등 철학자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유가 담겨 있다. <북캠퍼스 제공>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책이 지닌 또다른 장점이다.

먼저 삶을 다룬 철학자들에는 플라톤, 칸트, 한나 아렌트 등의 철학이 소개돼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반대하는 한편 옹고 그름은 맥락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모든 상황은 다르고 그에 따른 선이 요구되므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실천적 이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칸트는 감각적 경험이 지식의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지는 마음이 정한다. 즉 "우리의 마음은 보편적 규칙과 개념들로 채워져 있고 이 구조가 경험을 만든다"는 주장을 견지한다.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자유의지는 철학자들에게도 중요한 테마였다. 일부 철학자는 자유로운 선택과 인과적 필연성 의미를 중요시한다. 다른 철학자는 도덕, 개인적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 아리스토텔레스 견해는

'비결정론'에 입각해 있는데 그는 우리의 모습은 각자가 발전시킨 습관, 성격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철학자들의 사유는 어떻게. 사실 사랑은 특정한 동기를 유발하는 기제다. 저자에 따르면 초기 그리스인들은 에로스스와 아가페, 필리아를 구별했다. 책에 언급한 철학자들은 그것의 경계를 넘어 사랑을 탐구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모든 현실의 바탕이 되고 모든 현실을 고치시키는 '맹목적 의지'의 표현'으로 인식한다.

책에 소개된 철학자들은 소설가, 과학자, 정치가, 의사로도 활동했으며 당대 사유 흐름을 이끌었다. 또한 과학 발전을 주목하는 현대 철학자와 페미니즘 관련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어 현실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캠퍼스·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족보다 더 끈끈했던 일제강점기 화가와 문인들의 우정

시인과 화가

윤범모 지음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다"라고 말했던 시인 이상은 27년의 짧은 생애와 개성 있는 작품, 연애사 등이 어우러지며 그 어떤 예술가보다 궁금증을 자아내는 작가다. 그런 이상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낸 건 절친 화가 구본웅이 그린 '친구의 초상'일 것이다. 이상의 꿈은 원래 화가였다. 1931년 조선미전에 '자화상'을 출품해 입선하기도 했던 그는 실험성이 돋보이는 대표작 '날개'의 드로잉 작품을 직접 그렸고,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삽화를 '하용'이라는 필명으로 그리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경성을 중심으로 화가와 문인들이 우정과 교류와 연대를 통해 만들어간 '시대의 풍경'은 한국

근현대 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다. 시인과 문인은 서로의 예술적 교감을 공유하면서 각각의 작품에 반영시켰고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한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펴낸 '시인과 화가-한국 문단과 화단, 그 뜨거운 이야기'는 문인들과 화가들의 만남의 기록이다. 저자는 "시는 그림이요, 그림은 곧 시다. 시인과 화가는 바늘과 실의 관계였고 형제 같았다. 1920~30년대 서울은 문학과 미술이 한 가족이 되어 동고동락했다"고 말하며 그 시대의 풍경을 풍성한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복원해냈다.

잡지 '인간과 문화'에 실렸던 글들을 묶어 펴낸 책은 이상과 구본웅, 김용준과 김환기, 최승규와 나혜석, 구상과 이중섭, 박완서와 박수근, 김지하와 오윤에 이르는 다양한 예술가를 소개한다.

'시인들이 사랑한 시인' 백석과 채만식의 '탁류', 이광수의 '사랑' 등 수많은 책의 표지를 그렸던 화가 정현웅의 만남은 슬픈 사연을 품고 있다. 두 사람은 잡지사 편집자와 화백으로 옆자리에서 근무했고, 잡지 '여성'에 실린 백석의 대표작 '나와 나태사와 흰 당나귀'의 그

림을 그린 이가 정현웅이었다. 백석은 '북방에서-정현웅에게'라는 시를 쓸 정도로 그와의 우정을 애뜻히 여겼다. 무엇보다 각기 다른 시기에 월북해 북한에서 조우한 후 아동문학 '집계네 네 형제'의 표지화와 작가 초상으로 다시 인연을 이어갔다.

김환기는 이상의 아내였던 변동림과 재혼했다. 고희동의 주례에 사회는 정지용과 김진섭이었다.

이상의 아내 변동림과 재혼했던 김환기 역시 문인과의 교류가 깊었다. '유화 붓을 든 문인화가'였던 그는 '현대문학' 등 잡지를 비롯해 서정주-조병화-황순원의 소설 표지화를 그렸고 김광섭의 시 '저녁에'에서 영감을 받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그의 대표작이 됐다.

그밖에 화가 이중섭이 '시인 구상의 가족'이라는 그림을 남길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작가 구상은 일본인 아내와의 이별, 정신질환 등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이중섭의 예술혼을 지켜준 든든한 친구였다.

<다홀미디어·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독일 생물학자 아네테 크롭베네슈가 '빛 공해'의 위험을 경고한 책이다. 빛 공해는 인공적인 빛에 의해 밤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저자는 수면장애, 중독, 암 등 빛이 유발할 수 있는 질병과 자연-환경-사회에 빛 공해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다른 환경 문제들보다 빛 공해는 대처하기 한결 쉽다면서 지금보다 더 자주 불을 끄라고 권한다. <시공사·1만6000원>

▲상식의 틀을 깨라=가전업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발뮤다'의 창업자 테라오겐의 철학을 담은 책이다. 발뮤다는 그린 팬, 발뮤다 더 토스터, 발뮤다 더 팻 등 참신한 상품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가능성, 상식, 실패, 꿈을 비롯해 18가지 테마에 대해 한결같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인생을 더욱 자유롭게, 강하게 살아라!"로 통한다. <매일경제신문사·1만6000원>

▲개를 훔친 이웃집 여자= '디즈니의 악당들' 여섯 번째 책으로 장편 애니메이션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 (1961)에 나왔던 악녀 크루엘라를 조명한다. 소설은 크루엘라가 왜 런던에 있는 달마티안을 모조리 잡아 모피 코트를 만들려고 할 만큼 혐오하게 됐으며, 왜 잔인한 악당이 됐는지를 보여준다. 또 백발과 흑발이 반반 섞인 헤어 스타일을 하게 된 배경도 흥미롭다. <라공·1만5000원>



▲누구나 홈베이킹=지난 2016년 출간된 '마미헨즈의 베이킹 레시피'의 개정판으로 온가족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홈베이킹 레시피 북이다. 막걸리 발효종빵, 봄 썩빵, 햇양파빵, 검은콩 식빵, 검은깨롤, 부추 잉글리시 머핀 등 42개의 우리밀 발효빵과 43개의 우리밀 과자를 소개하며, 초보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과정 사진도 수록했다. <상상출판·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우리 공룡이 달라졌어요=어떻게 하면 티라노사우루스의 기운을 다시 샘솟게 할 수 있을까. 고생물학자 박진영이 쓰고 과학 만화가 김명호가 그린 '판타스틱 공룡 일상' 마지막 네 번째 책이다. 전편들에서 여러 공룡들의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와 주인공의 우정 그리고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씨드북·1만2000원>

▲나도 상종 받자!=평범한 11살 나도 담은 타 본 적이 없지만, 이제는 상을 받고 싶어졌다. 친구들은 응원해 주기는 커녕 놀리거나 한다. 속재하기도 귀찮아하던 도담이는 왜 갑자기 상을 받겠다

고 나셨을까? 이지훈 작가는 꼭 한 번이라도 상을 받고 싶어 하는 나도담의 좌충우돌 도전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과 재능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토도북·1만2000원>

▲기후 악당= '내일을여는어린이' 시리즈의 스토리 번째 책.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겪는 요즘, 하늘초등학교 4학년 '푸른 숲'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의 제안으로 바람산에서 낫던 산불의 진짜 범인을 찾으러 나선다. 책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한다. <내일을여는책·1만2000원>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똥땅 비어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